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

이원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 이 논문은 제62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16.12.17.)에서 기조 강연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만남의 소회 — 이어집
- II. 정주(定住) 중심의 탐구
- III. 유동적 접속으로 만들어 가기
- IV. 또 다른 만남의 예후 — 탈주

I. 만남의 소회 — 이어집

만남은 희망을 갖게 하고, 교류는 새로움을 낳는다. 교육학과 국어교육학의 통교는 두 학문을 크게 엮어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분야의 학자가 함께 펼치는 논의의 장은 학문 융합이 시대의 요구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데 연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이 얹히고설킨 관계는 태생적으로 숙명적이어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학문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학문의 길을 가야 한다.

모두의 말에서 의도가 드러나지만, 이 글은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를 위하여 쓴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두 학문 분야의 협력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특히 교육학의 관점에서 국어교육학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분히 권고적 성격의 연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의 학문적 편향성 때문에 교육학의 전관을 통섭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교육학 가운데에서도 연구자의 전

공인 교육과정 분야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국어학과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영역과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학자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국어교육학의 핵심을 벗어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힐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의 편차가 다른 내용들이 여러 차례의 담론과정을 거쳐 이해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뜻이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남이 빈번해지면 오해가 풀리고 교류가 지속되면 승화된 상생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고해 보건대, 십오륙 년 전 한국교육과정학회가 매달 여러 분야의 학자를 초빙하여 각 학문의 동향을 청취하고 토론한 적이 있다. 인접학문의 이해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탐구해야 할 바를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회원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임은 발표자 선정과 대화의 어려움 등 이런저런 까닭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아마도 그 학술모임이 지금껏 이어졌더라면, 교육과정학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은 외연을 형성하며 학문적 성장을 크게 이루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비하여, 국어교육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학문 활동은 여러 학문 분야와 교류를 앞으로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학회가 내적으로는 학문의 정체성을 다지고, 외적으로는 교류를 통해 쇄신을 거듭해 온 사실은 학회 홈페이지의 대체적인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학술대회에서 선정한 주제는 다채로우면서 깊이가 있다. 더욱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어교육학의 세계화를 앞당긴 사례에서는 과단성과 진취적 기상을 느낄 수 있다. 국어교육학회의 다양한 학문적 시도와 다자간의 교류가 『국어교육학연구』지의 피인용지수를 1위에 이르게 한 동력일 것이다.

학문의 고리와 고리를 이어가는 활동은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굳건히 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비롯하여 교육학을 포함한 사회학 예술 등도 동반 성장을 기하는 밑거름이 되는 일이다. 국어교육학회는 앞으로 학문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한

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교육학회가 교육학 하위 분야의 학자들과 돌아가면서 공동 연구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국어교육학은 모든 학문과 개방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국어교육학은 국어학과 교육학을 물리적으로 합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접근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하며 학문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국어교육학은 온갖 학문을 향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갖가지 주제를 두루 섭렵해야 한다.

학회 구성원의 합의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국어교육학과 교육학 두 영역에 국한하더라도 그 하위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따라 학문적 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관점을 여러 개로 나누고 층위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탐구를 한다면 정교한 협동연구가 부지기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라는 전반적이고 개관적인 담론으로 출발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편의상 학문간 교류의 가능성을 국어교육학에 초점을 맞추고, 주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강을 미리 말하자면, 그 하나는 학문 패러다임의 내적 충실성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확장을 위한 것이다. 전자가 각 학문 영역의 경계를 유지하고 학문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정주(定住) 중심의 관점’의 논의라면, 후자는 끊임없이 기존의 학문체계와 개념을 재검토하고 다른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와 쇄신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유동적 또는 노마드(nomad) 관점’을 바탕으로 장의 이름을 짓고 그에 적합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짐작을 하겠지만, 정주와 유동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들뢰즈(Deleuze)와 정신분석가 가타리(Guattari)에서 따온 말이다.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와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동연구를 연결시켜 보려는 기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각자 훌륭한 인물이지만 함께 연구를 한 이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탁월한 저술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로 국어교육학과 교육학도 각각 활발한 학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학문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더 큰 학문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들뢰즈와 가타리에 주목한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인 리좀(rhizome)에 있다. 리좀은 뿌리줄기의 형상을 하고 접속의 뜻인 ‘와(et, und/and)’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생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문 교류는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학문 분야‘와’ 이어지고 ‘만들기’를 거듭해야 한다.

II. 정주(定住) 중심의 탐구

학문 탐구는 학문의 토대가 되는 정주지 또는 정착지(定着地)에서 대부분 시작한다. 정착민들이 영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듯이 정주적 경향이 높은 학자들은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정주성을 크게 드러내 보이는 PCK에 대하여 잠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으로 국어의 표준화와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착지에서 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규범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어교육이 가장 광범위하면서 표준적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도 국어의 표준화에 대한 검토는 늘 필요할 것이다.

1. 학문 영역의 결합 연구: PCK

교과교육학에 대한 요구와 그 강도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사범대학내에 국문과로 출발하여 서울대학이 1963년 국어교육과로 개명을 하고, 1966년 경북대학이 그 뒤를 따

르고 있다. 미국에서 교과교육학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의 필요를 제기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의미에서 교과교육학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가 먼저 제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했고, 그 결실이 얼마나 충실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어서 이 절에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겠다.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교과 내용지식과 교육학을 별도로 가르쳤다.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강좌와 일반적인 교수법을 가르치는 교육학 강좌는 별개로 운영이 되었다.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탓도 이러한 교과내용 교육과 교육학의 분리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도 널뛰기처럼 어느 때에는 교과 내용을 위주로 치러지다가 하면 어떤 시기에는 교육학을 주류로 출제를 하였다.

Shulman은 1980년대에는 진자의 끝이 방법 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사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가르칠 내용이고, 질문이며, 해야 할 설명”(Shulman, 1986a: 8)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1875년 교원 시험과 당시 1980년대의 시험을 비교하면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가르칠 내용과 방법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방법이나 절차가 더 강조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내용과 방법을 교접하는 ‘교과교육학적 지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었다.

이후 그가 제안한 PCK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각 교과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어교육학계에서도 PCK 관련 논문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국어교육학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에 이르기에는 한참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 여겨진다. 심하게 말하면, 총체적 연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PCK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 대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채로 다른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사장되어 버릴 운명

에 처할 수도 있다.

사실 Shulman 자신조차 PCK를 말한 같은 해에 “교실, 학습, 교수에는 실재하는 세계가 없다”(Shulman, 1986b: 7)는 가정 하에 “교수연구의 개략적 지도”(Shulman, 1986b: 9)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수와 학습 사이에 사회적 매개와 인지적 매개를 가정하는 도식도 내놓고, 교실 생태학과 인지과학에 대한 현황과 전망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논의는 접고, 단지 PCK와 관련된 언급만 잠시 더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다.

Shulman(1987: 8)이 제안한 PCK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7가지 ‘지식 기반’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제시한 7가지 지식 기반의 종류에는 (1)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2) 일반 교육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3) 교육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4) 교과교육학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5) 학습자 특성 지식(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6) 교육적 상황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7) 교육목적, 목표와 가치 및 그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ends, purposes, and values and their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grounds)이 있다.¹⁾

그런데 PCK는 다른 6가지 지식과 더불어 출현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PCK의 독자성은 다른 지식과 함께 해야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인접 영역과 끊임없는 교섭을 해야 제 자리가 지켜진다. PCK가 교과 내용과 교육 방법을 영역적으로 단순 결합한 것이 아니라 화학적 혼합이 이루어질 정도로 크게 변화하려면 PCK는 다른 6가지 ‘지식 기반’을 하나둘씩 또는 그 이상 모두를 연결하는 작업과 연구가 요구된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반’ 7가지를 조합하더라도 다량의 연구거

1) PCK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길병휘 외(2004), 『교사교육: 반성과 설계』의 I부 2장, II부 4장 참고.

리가 생기게 된다. 사실 이 7가지만 한정하더라도 협력적 연구의 영역은 꽤나 많다. 그런데 각 지식의 하위요소를 고려한다면 연구해야 할 분야는 거의 무한정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얼마나 더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Shulman은 7가지 지식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Shulman, 1987: 8)의 것이라고 한 말을 다시 되새겨 보면, 국어교육학과 교육학 그리고 여타 학문과의 교류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러나 타 학문간 교류에 앞서 정주적 관점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PCK와 관련한 정교하고 더 효과적인 연구를 많이 배태시키려면 초중고를 비롯하여 대학에서 국어수업을 하면서 전개된 여러 자료를 기록하는 저장소가 필요가 있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빅 데이터는 국어교육을 개선하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장을 꾀하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학교마다 국어교육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것도 PCK를 세련시키는 데 매우 가치가 있는 과업일 것이다. 이런 일을 앞서 착실히 해 두고 교육학 또는 다른 학문과의 본격적인 교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2. 국어의 표준화와 교육

국어교과는 다양한 별칭이 있다. 도구교과, 수단교과, 기초교과, 형식교과가 그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류상의 언사가 오가는 것은 국어가 일상생활이나 학문연구 어디에나 수사적 표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곳에 두루 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표준이 있어야 한다. 표준화는 표준에 합당한 이유를 붙이는 작업이다. 한 번 정한 표준도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표준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표준이 없이는 중구난방을 면하기 어렵다. 표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하면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1897년 Rice는 학생들에게 철자를 가르치는 데 매일 15분을 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15분을 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대하여 처음에는 교육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곧 Rice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양적연구의 개척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최소필수요건’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수업의 ‘표준 단위’를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Kliebard, 1986; Tanner & Tanner, 1975).

교사를 위해 Thorndike는 단어 찾기에 관한 책(1921, 1932, 1944)을 세 번에 걸쳐 발간하였다. 그 책은 영어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우리 국어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Thorndike는 그의 책 서문에 단어 빈도는 “쓰기, 말하기를 포함해서 표준 영어 읽기 자료를 위해서 필요하며, 단어 목록은 읽기 수업에서도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강조해야 할지를 가장 적합하게 안내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en.wikipedia.org, 2016. 11. 18. 검색).

우리나라에서 단어 찾기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단연 외솔 최현배 선생이 돋보인다. 그는 1930년 일제치하에서도 “한글의 낱낱의 글자의 쓰히는 번수로써의 차례잡기”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6·25사변 중에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그는 부산 피난지에서 1951년 3월에 계획을 세워 4월부터 조사를 하고 4년간 작업을 하여 1955년에 『우리말에 쓰힌 글자의 찾기 조사 — 문자 빈도 조사』, 1956년에는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 어휘사용 빈도 조사』를 이승화와 같이 발간을 하였다.²⁾

이 두 권의 책은 1000부 한정판으로 인쇄가 되어 학교에 모두 배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말 표준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공헌

2) 이 두 책의 지은이와 펴낸이는 문교부로 되어 있고, “이 일에는 촉탁 7명과 임시직원 128명이 종사하였다.”고 당시 리선근 문교부 장관이 책 서문에 적고 있다. 그러나 서상규(2014: 40)는 실제 조사 책임자 격인 최현배와 실무 전반을 담당한 이승화 두 사람의 공동 저작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솔 선생의 조사를 뒤로 한동안 빈도 조사는 뜸하였다. 이응백 교수가 한참 뒤에 『국민학교 학습용 기본어휘 연구』(1989)를 발표하고, 1990년대에 이르러 몇 가지 빈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 한국어 학습용 어휘선정을 위한 기초조사』(조남호, 2002)를 비롯하여 『학년별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김한샘, 2009), 『초등학교 글쓰기 어휘 조사 연구』(김한샘, 2010) 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도 조사의 최고봉은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의 성과일 것이다. 10년의 연구를 거쳐 나온 ‘세종 말뭉치’와 ‘전자 사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쾌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종 말뭉치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혹은 세종 말뭉치를 손에 쥐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황우주·최정동, 2016: 84)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를 학자들이나 참고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외면한다. 다른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빈도가 높은 순서부터 해당 용어에 대한 해설이나 동영상이 연동되어 나오는데, 복잡한 세종 말뭉치를 활용하라고 한들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목적이 분명하고, 활용이 쉬우며, 계속 새로 바뀌는 참신성이 없으면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다. 게다가 표준화가 되려면 자료를 읽어 내는 기준(표)이 만들어져야 한다. 연령층이나, 학년, 학교, 남녀, 지역, 교과, 생활 장면 등에 따라 자료가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나 분류가 아니라면 사전류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로 제시한 세종 말뭉치를 활용한 15개 사전³⁾(홍운표, 2009: 30) 가운데 몇 개가 편찬되

3) 홍운표 교수가 세종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 편찬으로 예시한 15개에는 ‘한국어 의성 의태어(상징어)’, ‘한자어’, ‘외래어’, ‘세기별 국어’, ‘어휘 역사’, ‘방언’,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 ‘점사’, ‘신문어’, ‘구어’, ‘고소설 어휘’, ‘전문용어’, ‘신조어’, ‘종교어(불교, 기독교, 유교 등)’ 사전 편찬이다.

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적 견지나 실제적 관점에서 말의 빈도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개선(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코드 변환, 수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하여 초·중고생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때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었던 ‘스타크래프트’(최근에는 ‘오버워치’가 유행이라고 하더니 금세 ‘포켓 몬go’가 대세가 되었다)처럼 선풍을 일으킨다면 최적격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심이라도 갖도록 해야 한다.

실제 수업시간 중에 자기의 글과 말을 분석할 기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저장하여 바로 활용한다는 점을 목도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구어를 분석할 수 있는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급에서 입력한 자료가, 학년을 넘어 학교,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어지며 빅 데이터가 되고, 매일 또는 실시간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이 분석되는 것을 지켜 볼 수 있다면 자신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한다. 구문 분석 말뭉치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세종 말뭉치 가운데 원시 말뭉치가 약 3,770만 어절, 형태 분석과 의미분석 말뭉치가 각각 약 1,000만 어절인데 비하여 구문 분석 말뭉치는 약 45만 어절(황용주·최정도, 2016: 8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표준화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이 협력 연구로 진척시키거나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더 탐구해야 할 연구 주제로 판단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항목들은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의미에 관한 연구, 국어과의 내용분류 기준 연구,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표준화 연구 및 독서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와 관련한 하위 과제들을 예시로 열거한 것이다.

● 어휘의미의 깊이나 말뜻의 층차에 대한 연구

- 교육목표분류학의 위계 관련 연구: 목표의 수준별 용어를 번역할 때 국어에서

위계적 차이를 드러내는 용어의 적합성과 선정에 대한 연구. 예컨대 Anderson과 Krathwohl 등(2001)이 편찬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Bloom 교육목표분류학 개정판』(Anderson, L. W. et al, 2001/2005)에서 ‘기억하다-이해하다-적용하다-분석하다-평가하다-창안하다’ 동사의 위계, 그리고 김영채(1978: 59-70)가 제시한 행위동사의 위계나 학습 영역 분류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연구

- 지적 기능과 관련한 개념의 위계 연구. 예컨대, ‘변별하다-확인하다-분류하다-실증하다-산출하다’에 대한 위계의 적정성 연구

● 국어교과 내용 영역과 분류 기준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분절적 영역 설정에 대한 기준 연구
- 학년별(또는 초·중등학교) 내용 영역 구분의 기준 연구

□참고사항: * 1~3차 교육과정 시기: 언어활동 중심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 4차: 표현·이해 언어 문학 3영역, 5~6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7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2007 개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2009~2015: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 고등학교 전문교과 I의 예술계열에 문예창작입문 문학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감상을 포함시키고 있음

● 듣기와 말하기 표준화 연구

- 듣기 자료의 표준화 방안과 학년별 수준에 관한 연구
- 각 지역별 방언과 표준말의 지도 방안 연구
- 학생들의 말하기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또는 코스웨어) 개발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타 교과와의 통합과 지도 방안 연구
 - * 학생들이 말한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말하기 표준화 작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 수업 전 시(또는 좋은 글귀) 암송 및 듣기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국어교육 외에 인성함양에도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읽기 활동의 표준화 작업

- 초등학교 학년별 읽기 속도와 강도에 관한 연구 - 1분(또는 30분)간 읽는 글자 수에 관한 연구, 읽기 내용의 자막 처리에 관한 연구: 자막 처리 기술의 활용은 국어교육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읽기 교과서 자료(개발)의 학년별 (난이도) 수준과 기준의 연구
- “느낌을 살려 읽기”를 느낌의 ‘분류’에 따라 다르게 읽도록 지도하는 방법 연구
- 상황별 읽기 속도와 리듬감에 대한 연구. 예컨대, 북한 아나운서의 뉴스 원고 읽는 유형과 우리의 읽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짐
*읽기 자료 모음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음 자료의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학년별 독서 목록을 작성하면 해결될 사안일 것임
*‘읽기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할 것임

● 쓰기의 표준화 작업

- 초등학교 학생에게 본보기로 제시하는 쓰기의 글자체에 대한 ‘표준 글자체 연구’: 한 가지 글자체만을 학생들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년별 쓰기 속도에 관한 연구 - 1분(또는 5분)간 쓰는 글자 수 연구, 컴퓨터 타자 속도에 관한 연구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학년별 쓰기 견본 척도(product rating scale) 개발 연구: 쓰기 평가에 매우 필요한 연구가 될 것임
- 모필(붓글씨) 쓰기와 경필 쓰기의 통합지도 방안 연구
- 왼손으로 글 쓰는 학생을 위한 쓰기 지도 연구
- 예쁜 글쓰기와 일반 글쓰기의 통합 지도 연구
- 상황별 학년별 작문의 속도 및 표본에 관한 연구
* 「쓰기 교육과정중심측정(CBM-W)의 요인 구조에 관한 연구」(김애화, 2016), 「한글 철자 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

KDSA)의 타당도 검증」(양민화 외, 2016) 참고할 만함

* 미술과의 내용에 포함하는 붓글씨, POP 등은 국어시간의 글쓰기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 통합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컴퓨터 자판, 휴대폰 자판 등 치기도 쓰기 활동으로 포함시켜 연구해야 할 것임

● 학년별 독서 목록, 문학가 또는 작가 목록 작성

• 학년별 또는 학교별 독서목록 작성 및 활용 연구

• 읽어야 할 책의 학년별 표준 조정에 대한 연구

* 국어교육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일 것임

* 독서목록 작성과 문학가 선정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예를 들면 출판사간 작가들의 경쟁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특별법을 제정해야 가능할 것이라 예상함

* 동일한 책이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water down)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예컨대 '심청전'이라면 초등 1년생이 읽는 것과 6학년 또는 고등학생이 읽는 내용은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임

* 독서목록을 계열화 또는 차례를 제시하고, 각 책을 읽고 난 뒤의 퀴즈나 평가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현행 학문의 패러다임 또는 교과와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여러 가지 연구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 가운데에는 이미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최근에 풍미한 구성주의나 질적 연구와 같은 이론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제안한 항목들이 적절한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활동분석법, 측정평가 표준화, 행동주의, 양적 연구와 같은 미시적 연구와 분석적 작업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이론과 탐구법이 나왔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유동적 접속으로 만들어 가기

이제 정주 중심의 탐구에서 벗어나 유동의 세상으로 들어가 국어교육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해 볼까 한다. 노마드의 세계는 알려지다시피 경계가 없거나 흐릿하다. 테두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없는 세상은 더 유연하고 멀리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닐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정착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어서 늘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국어교육학과 교육학도 성질상 노마드의 세계를 더 닮았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일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듯이 국어는 언제 어디에건 질주하여 관여하기 때문이다. 교육학도 어떤 상황에서나 손을 뻗어 잡고 참여하려는 속성은 국어교육학에 못지않다.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은 특성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접속하며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1. 교육학을 넘어서

교육학, 범위를 좁히면 교육과정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Curriculum Inquiry*의 2016년 6월호는 특별호로 발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호의 주제는 “관심 아동”(child in question) 또는 “문제 아동”이었다. 일견 이 주제는 상담심리나 사회복지 분야에 적합할 법하다. 이제껏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인 아동이나 보통의 아동이 아닌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관심을 특별히 쏘아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학술잡지가 어찌 보면 심리학 분야에서조차 지엽적인 주제로 치부할 수 있는 ‘관심 아동’을 왜 교육과정의 학술적 주제, 그것도 특별호의 주제로 정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먼저, 이 잡지의 초빙편집자인 Farley와 Garlen(2016: 221-228)이 특별호의 서문에 적은 글을 몇 도막 옮겨 본다.

- 아동과 아동기의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보편성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과 아동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하고 규정하기 어려우며, 그 한계도 매우 유동적이다. 아동기의 경험은 문화와 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규정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아동 경험은 아주 다르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보편적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우리가 아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지금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지식의 영역도 있다. 이 특별호에서는 ‘지식화의 저항’(resistance to knowledge)’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지식의 성질에 대하여 탐구하게 될 것이다.
- 특별호에서는 아동기가 사회에서 제한적 의미로 사용된 미래상, 인간성, 타자, 소속감, 정상상태, 발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 이론의 힘과 역사의 권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아동기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별호의 탐구내용을 보면, 아동 또는 아동기라는 기존 지식을 해체한다. 요컨대, 보편성이나 일반성 또는 기존 이론으로 포장된 아동의 개념은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호의 내용이나 탐구방법은 전통적 교육과정의 ‘개발’ 개념과는 꽤어 맞출 수가 없다. 교육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경험이나 내용을 선정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하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어교육학도 이제껏 당연시해 온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식 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목표-내용-방법-평가의 개발 절차를 4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지금까지 왜 계속 유지해 오는지에 대해 토론해 볼 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 교과에 걸쳐 동일한 내용체계로 작성된 ‘핵심개념-일반화된 지식-학년별 내용요소-기능’이 국어과에도 적합한 것인지, 국어교육에 얼마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과 국어과 역량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성취기준, 핵심 성취기준 그리고 각종 목표와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일관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범위를 넘어 당장 연구영역을 크게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학교교육 이전의 조기교육과 학교교육 이후의 평생교육에 국어교육학을 접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모국어를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국어교육도 필요하고, 평생교육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국어교육학의 내용을 짜고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도 국어교육학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시험치고 자격증 부여하는 수준은 넘어야 할 것이다. 각 나라의 문화에 바탕을 두고 우리 문화,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내용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와 관련한 시험이 치러져야 한다.

그렇지만 멀리 내다보면 학교교육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국어교육이 손대어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초중등학교의 국어교육 영역 내에서도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다른 분야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을 떠나 다른 영역에까지 눈을 돌리고 책임까지 떠맡는다는 것은 국어교육학을 방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국어교육학을 다채롭게 하고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초중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학이나 국어교사들의 연수를 위한 국어교육학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교육의 테두리에 갇힌 국어교육학에서 탁 트인 공간으

로 나가 지평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멀리 교육영역을 넘어서고 교육과 단절된 경지, 특히 국어교육과는 멀리 떨어져 소외를 받던 곳에 눈을 돌림으로써 국어교육학은 새로운 영토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적으로 국어교육학은 전 교육영역에 걸친 쪽으로 학문의 방향을 크게 틀어나가야 한다.

2. 국어학을 넘어서

연구년 때 경험한 두 가지 일을 소개하면서 이 절을 시작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일화: 나는 미국 소도시에 있는 한 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 대만, 일본 교수와 함께 일 년을 보냈다. 어느 날 거실에 네 명이 앉아 한자로 일부터 십까지를 나라마다 어떻게 읽는가 알아보다가 내친 김에 아는 한자를 이것저것 써 가며 서로 발음을 해 보았다. 우리는 대만과 한국이 비교적 비슷하게 발음을 하고, 중국과 일본은 다르게 읽는다는 데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발음이 거의 고어에 가깝고, 중국과 일본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일화: 중국인 교수는 대단히 검약하게 살았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에게 전화를 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한 번 전화를 걸면 두 시간은 족히 한 것 같다. 십사오 년 전 일이니 전화카드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비용이 만만하지 않을 때였다. 그 교수는 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 주는 듯했다. 그는 영문학이 전공이어서 그런지 딸이 한시를 외우는 것을 꽤 좋아했다. 국외 전화기 소리는 증폭이 된 탓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높낮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한시를 외울 때에는 거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래서 내가 “시가 아니라 노래와 같다.”고 했더니, 중국인 교수는 “한국에서는 ‘詩歌’라고 하지 않나?”고 되물었다.

첫 번째 일화의 경우, 나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중국, 대만, 일본 언어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더 깊은 탐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국어는 동양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 국어의 정체성은 국어에 파문될 때가 아니라 바깥에서 멀리서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두 번째의 경우, 나는 우리나라 국어교육에서 시의 구조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는 잘 가르치지만, 시의 운율이나 말의 고저장단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 한 가지 예로 ‘청산별곡’을 배웠지만, 『시용향약보』에 실린 평조로 된 곡을 불러 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국어교육학은 정착된 국어교육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국악과도 손을 잡고 가르칠 때 국어의 진가가 더 드러날 수 있다. 고전음악보표를 읽고 노래하는 것은 국악 분야이고, 작자를 따지고 어의를 설명하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 청산별곡이든 서경별곡이든 반쪽짜리 교육을 하는 셈이 되고 만다. 좀 심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어라는 말의 뜻도 분명한 것도 아닌데 굳이 국어에서만 국어교육학의 연구 과제를 찾을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국어의 뜻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중국 주나라의 좌구명이 쓴 역사책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는 말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사전의 개념 규정은 평이하지만, 애매모호한 구석도 없지 않다. 전자의 경우 따지고 들면 예외도 많이 생긴다. 우선,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말은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외국어를 말할 때나,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본국 말을 할 때, 한국인이 쓰는 말을 국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우리나라 언어는 무엇이었던가, 당시에 적어 놓은 글이 한문이니 한국어는 한문이라 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표기된 내용이나 개념을 분석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해방 전후 학생 생활기록부인 학적부를 보면,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해방 이전까지 국어는 일본어이었고, 국사는 일본사였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학적부를 바꾸지는 않았다. 해방과 더불어 국어는 한국어가 되고 국사는 우리 국사로 변했다. 당시 4학년 학생의 경우, 4학년까지 국어는 일본어이고, 5-6학년은 한국어를 뜻한다. 국어라는 표기가 같다고 의미마저 같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당시의 역사적 맥락, 문화적 여건, 문자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헤아려 보지 않고 단순히 표기된 문자로 의미를 새긴다면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게 된다(이원희, 2005).

국어교육학은 국어라는 말을 넘어서 여러 분야와 통교를 해야 한다. 국어와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과 관련하여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탐구를 하지 않으면 국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할 위험마저 있다. 이론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교실 현장에서도 국어나 국어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이다. 국어교사(송영필, 2016: 91-92)로 19년의 경력을 가진 고등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 보겠다.

(국어)수업이 시작되면 가르칠 도구를 가지고 교실에 입장한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을 깨우면서 달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중략) 학생들 중 1/3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입시를 위해 열심히 받아 적는다. 그리고 1/3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 적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 적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다. 마지막 1/3은 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교실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한다. 또 깨운다. 수업과 깨움의 반복 속에서 한 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답답함을 해소할 길이 없다. 아, 어쩌면 좋을까.

위의 말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은 학생들에게 국어수업이란 국어 지식 습득이나 국어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학입시의 수단에 불과하다. 수업은 학생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와 관계가 있고, 수업방법과 관련이 깊다. 특히 교사에게는 수업시간 중에 자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가 국어교육보다 더 심각한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문제는 비단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성열관·이형빈, 2014)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실붕괴의 문제는 국어교육을 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많은 경우 심리학의 문제이고, 사회학적으로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 윤리와 규범, 사회계층간의 문제, 청소년과 성인의 세대 차이를 파헤쳐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또 가정교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경직된 교육제도나 융통성이 없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어수업은 수업을 둘러싼 다양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제는 거의 상식화 되었다고 보지만,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난독증의 경우 단순히 국어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난제가 개재되어 있다. 난독증이 있는 어린이는 소아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에게 상담을 위탁하여 치료하도록 해야 하고,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2차원적인 글자를 3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학생에게는 특수한 입체 글자를 고안하여 읽도록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처럼 보인다(최명철, 2016). 컴퓨터 공학이나 요사이 회자되는 인공지능 AI와 협력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뇌의 기질적 이상에 기인한 난독증이라면 뇌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정리하건대, 국어교육학은 정형화된 국어의 틀에서 나와야 새로운 국어교육학의 영토를 얻는다. 그러나 새 땅은 정착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나서는 몽골인의 이동식 천막집 게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주는 단절이 아니라 총체적 언어학습에서 말하는 ‘온 세상’(Barr, 2001)과 같이 지구 곳곳을 이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정착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동하여 연구하며 이 물음 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 국어교육학이 안고 있는 어려움도 틀림없이 풀릴 것이다. 요컨대,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은 국어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학문과 여러 가지 실제 분야에서 협력적 연구와 공동의 실천을 통해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IV. 또 다른 만남의 예후 - 탈주

만남은 언제나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또 다른 만남을 상정한다. 탈주선을 따라 벗어난다고 하지만 다시 엮이고 만다. 앞서 말한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만남의 이어짐’이었다. 학문은 정체됨이 없이 끝없이 다른 영역과 교류하며 탐구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껏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는 형태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교과교육학 지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 많지만, 전공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져 소원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국어교육학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육학회의 총회를 가 보면 교육학회의 분과학회보다 참석하는 인원이 더 적을 때가 많다. 같은 전공 학자끼리의 모임은 자주 가지면서 모 학회인 교육학회의 학술대회는 일 년에 두 번이지만, 잘 모이지를 앓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처지에도 국어교육학회가 전공을 넘어서 타 학문간 교류를 시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더구나 국어교육학에 대하여 일천한 지식을 가진 이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국어교육학회가 그만큼 배포와 역량을 갖추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국어교육학회 회원들의 응축된 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문간 소통을 확산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그러한 확충 노력은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모적인 일이 아닐 것이다. 국어나 국어교육학이나 학문의 특성상 어떤 학문 영역이나 실제 분야에서도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풀꽃도 꽃이다』(조정래, 2016)라는 책은 문학을 넘어선 훌륭한 교육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을 본다.

신식 교과가 탄생한 초창기를 떠올려 보아도 거의 모든 학문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국어교과가 관여하는 양태를 찾아볼 수 있다. 개화기에 발간한 『국민소학독본』(1895년 간행)은 그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 준다. 이 책은 ‘독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까닭으로 국어와 관련된 내용만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라 할 수가 없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1과 대조선국을 비롯하여 한양 식물변화 시계 조약국 근학 돈 뉴욕 을지문덕 아메리카발견 원소 제41과 칭기즈칸 등으로 역사 지리 경제 사회윤리 국제이해 과학 교육 등 갖가지 내용으로 편찬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형성의 초창기 국어교과의 내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였다. 교과 내용 구성에 다시금 초심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 시기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망라하여 편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어교육학은 다른 학문분야와 손을 잡고 공동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국어교육학회가 주도적으로 힘을 모아 성사시켜야 할 현안을 세 가지 추려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학생들이 읽을 독서목록 작성이다.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정해야 한다. 둘째는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자기 글과 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분석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전국의 국어교사들이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빅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한문을 가르쳐 준 족조 소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쓰는 일에서 탈주를 하고자 한다.

서정주 시인은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 ‘국화 옆에서’는 한퇴지가 맹동야(孟東野)를 보내며 쓴 글 가운데 나오는 네 마디를 시상으로 옮긴 것이야. 以鳥鳴春 以雷鳴夏 以蟲鳴秋 以風鳴冬이 그것이지. 윤동주 시인도 한학을 많이 한 것이 분명해. ‘서시’는 『맹자』「진심장」에 나오는 군자삼락 가운데 두 번째인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에서 발상을 한 것이 틀림없어.

이 말을 듣고 난 후,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가 오히려 나에게 더 다가왔다. 그 시는 사시사철 이것저것이 울어 대는 것이 아니었다. 노오란 국화를 피우기 위한 누님의 울음이었고, 젊음의 뒀안길에서 돌아와 옛 모습을 회상하며 흘리는 자신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지조와 고결미를 맹자를 통해 더 절실하게 새길 수 있었다. 양혜왕 앞에서 거침없이 정의를 말할 수 있었던 맹자의 기백을 윤동주의 시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국어와 국어교육학을 벗어나서 읽고 보는 것이 결코 국어를 훼손하는 소행이 아니며, 국어교육학의 이론과 실재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 본 논문은 2017. 2. 9.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길병희 외(2004), 『교사교육: 반성과 설계』, 교육과학사.
- 김애화(2016), 「쓰기 교육과정중심측정(CBM-W)의 요인 구조에 관한 연구로」, 『초등교육연구』 29(4), 55-77, 한국초등교육학회.
- 김영채(1978), 『교육 심리 측정 · 평가 총론』, 교육과학사.
- 김한샘(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김한샘(2010), 『초등학교 글쓰기 어휘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문교부(1955),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 문교부.
- 문교부(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어휘 사용 빈도 조사』, 문교부.
- 서상규(2014), 「최현배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새국어생활』 24(3), 38-60, 국립국어원.
- 성열관 · 이형빈(2014), 「‘수업시간에 자는 중학생’ 연구 수업참여 기피 현상에 대한 근거이론」, 『교육사회학연구』 24(1), 147-171, 한국교육사회학회.
- 송영필(2016),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백워드 설계의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시스템의 점검과 현장 지원방안: 수업과 평가의 변화』, 제2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자료집, 91-107, 한국교육과정학회.
- 양민화 외(2016), 「한글 철자 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 KCSA)의 타당도 검증」, 『초등교육연구』 29(4), 161-176, 한국초등교육학회.
- 이원희(1990), 「교육목표진술에 활용된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교육학논총』 9, 105-121, 대구 · 경북교육학회.
- 이원희(2005), 「초등교육과정의 변천과 과제」, 『광복 60년, 한국초등교육의 재조명』, 한국초등교육학회 2005학년도 연차학술대회, 15-40, 한국초등교육학회.
- 이응백(1989), 『국민학교 학습용 기본어휘 연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진경(2002), 『노마더즘 I』, 휴머니스트.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조정래(2016), 『풀꽃도 꽃이다 1, 2』, 해냄.
- 최명철(2016), 「난독증, 지능 아닌 뇌기능 차이 인식」, 매일신문, 2016. 11. 14일자, 16면.
- 학부 편(1895), 『국민소학독본』, 학부편집국.
- 홍윤표(2009), 「21세기 세중 계획 사업 성과 및 과제」, 『새국어생활』 19(1), 5-33, 국립국어원.
- 황용주 · 최정동(2016), 「21세 세중 말뭉치 제대로 살펴보기: 언어정보나눔터 활용하기」, 『새국어생활』 26(2), 73-86, 국립국어원.
- Anderson, L. W. et al.(2005),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강현석 외 7인 역, 아카데미프레스(원서출판 2001).
- Deleuze, G., & Guattari, F.(1995),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역, 현대미학사(원서출판

- 1992).
- Barr, R. (2001), "Research on the teaching of reading," In: M. V. Richard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4th ed.) (pp. 390-415), Washington, D. 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Farley, L. & Garlen, J. C. (2016), "The child in question: Child texts, cultures, and curricula," *Curriculum Inquiry*, 46(3), 221-229.
- Kliebard, H. M. (1986),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curriculum, 1893-1959*, Routledge & Kegan Paul.
- Shulman, L. S. (1986a),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 S. (1986b), "Paradigms and research programs in the study of teach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In: M. C. Wittroc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3rd ed.) (pp. 3-36),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Shulman, L. S. (1987), "Knowing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 Tanner, D. & Tanner, L. (1975),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http://en.wikipedia.org/wiki/Edward_Thorndike (2016.11.18. 검색).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

이원희

학문간 교류는 각 학문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이 글은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교류를 위하여 쓴 것이다. 그러나 교육학의 관점에서 두 학문의 협력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어교육학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논의의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의 협력적 연구는 한동안 교과교육학 지식(PCK)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어교과와 관련한 실험연구물들이 누적되어 빅 데이터로 구축되어야 한다. 아직은 국어의 표준화 사업에 힘써야 할 일도 많다. 그중에는 학년별 표준 독서목록을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말을 직접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필요하다. 둘째, 국어교육학은 이제껏 당연시해 온 기존의 내용체제와 방법적 원리를 재검토하고, 교과 전반에 걸친 공동연구를 도모하며, 모든 생활 영역에 관여하여 학문의 폭과 깊이를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핵심어 국어교육학, 교육학, 교과교육학 지식, 표준화, 협동연구

ABSTRACT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 Korean Education and General Pedagogy

Lee Wonhee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some ideas regarding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 Korean Education (KE) and General Pedagogy (G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terdisciplinary studies connecting KE and GP would be activated by utilizing various kind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researches. In order to develop KE scie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big data of classroom practices should be collected by educational practitioner. Moreover, it seems a priori task to make an appropriate grade level reading inventory. It also necessary to develop the open courseware that students themselves could analyze and monitor their own (written or oral) performance in real time. Secondly, KE educators should criticize the presupposed concepts and methodologies taken for granted, try to collaborate with the academic studies, and engage in all areas of living experience, thereby they can expand and create their academic scope of KE.

KEYWORDS Korean Education, General Pedagogy,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tandardization, collaborative study